

사설

스님이 정치 참여라니?

계축에 의하면 스님은 왕궁에 출입 해선 안 된다. 바리새에 해당된다. <증일아함경> 결구품에는 국왕을 가까이 하는 승려에겐 열 가지 허물이 생긴다고 경계한다. 정쟁에 휘말려 교단을 어지럽게 하거나 출가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다투어야 하기 때문이다. 범비사라 임금 이 설법을 들으러 왔을 때 부처님은 앞자리를 내어 주지 않으셨다. 들어온 순서대로 앉아야 마땅하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불교계의 중심지역이라 말할 수 있는 부산에서 개혁신당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불교연대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에 일부 스님을 비롯한 지역불교계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논쟁을 하고 있다. 출가자 개인이 정치활동을 해도 파격이거

늘 하물며 불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당의 형태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어디다 아부를 하겠다는 것인가?

불교인도 정치를 할 수 있다. 정치인도 불교도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교가 특정 정파나 이념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종교의 균형 감각이나 사회적 순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재가자들 역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교계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스님들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과 신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이 고도의 정치행위가 될 수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 안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12일 공단의 이사장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상 방침을 밝히며 종단의 협조를 당부했고 조계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립공원 입장료의 인상이 당장의 적자를 모면하기 위한 카드여서 안 된다. IMF 이후 공원 탐방객이 매년 100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 매년 100억 원씩의 적자가 발생해 9월부터 30%선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우리는 이 설명을 액면 그대로 생각하는 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본다. 국민의 레저 휴양 패턴이 다양화 되면서 공원 탐방객이 줄어들었다면 공단은 공원의 운영과 기능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오히려 입장료를 폐지하고 공원을 국민과 더

욱 친근하게 하는 것이 옳다.

입장료에 의존해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입장료로 형성되는 예산 가운데 시설 투자보다 인건비가 월등히 많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단은 '수의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수익자는 국민 전체다. 공원이 품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 다양한 가치의 수혜자는 국민 전체이지 탐방객에 국한할 수는 없다. 보다 많은 국민이 편하게 국립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입장료를 폐지하고 정부예산으로 각종 관리업무와 시설보호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적자가 입장료 인상의 이유라면 앞으로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단이 이번 기회에 보다 근원적인데서 입장료 문제를 생각하길 바란다.

국립공원 입장료 30% 인상추진 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 입장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재규 이사장은 12일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 공원 입장료 인상 방침을 밝히고 조계종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매년 입장객이 100만명씩 줄어들면서 연간 1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어 입장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달까지 조계종과 의견을 조율해 9월부터 인상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장스님은 "종단의 관료위원회를 소집해 논의

김이사장 "내달 시행"…조계종 협조요청

법장스님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부정적

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입장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현실적인 맞춤형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조계종의 협조를 요청한 것은 공원 입장료 인상이 조계종과 공단이 서로 협의하도록 한 1997년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 측은 입장료 30% 인상 방침을 담은 공문을 조

계종에 보내는 등 사전 조율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조계종은 공원 입장료를 인상할 경우, 공원 입장료와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하고 있는 국립공원내 21개 사찰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계종은 지금까지 입장료 폐지 방침을 고수해 온 데다, 인상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어려운

제 25기 행사교육원 개원

조계종, 남·녀행자 154명

조계종 제25기 행사교육원이 14일 개원해 9월 5일까지 제8교구본사 직지사서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교육원에는 모두 192명(남행자 105명, 여행자 87명)이 지원해 10명이 서류심사에서 떨어지고 14명이 불참해 168명(남 93명, 여 75명)이 입교했다. 그러나 첫날 입방고사와 갈마에서 각각 3명(남, 11명(남 9명, 여 2명))이 불참해 15일 고불식에는 남행자 81명과 여행자 73명 등 154명이 최종 참가했다.

이들 154명은 20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9월 4일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마지막 날 조계종의 예비승인 사미니(니)계를 받게 된다.

권형진 기자

동국대-日 류코쿠대 교환강좌

내년 정토진중학-한국일반불교 개설

동국대가 외국 자매대학과 처음으로 교환 강좌를 실시한다.

동국대는 일본 류코쿠(龍谷)대학과 상대 학교에 직접 강좌를 개설하는 '교환 강좌'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동국대는 세계 11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직접 강좌를 개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방문한 류코쿠대학 나카가와 호조 문학부장, 조지기와 준이치 교학과장 등 대학 및 재단 관계

자들과 동국대는 △계절학기 형태로 3학점짜리 1과목을 내년부터 개설하며 △류코쿠대학에는 '한국의 일본 불교'를, 동국대에는 '정토진중학'을 각각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법산 스님(정각원장)은 "동국대의 건학이념과 조계종의 총지·총풍을 담은 과목을 외국 대학에 직접 개설한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동국대건학 100주년...D-1000일 행사 동국대는 12일 건학 100주년 기념일을 1천 일 앞두고 서울캠퍼스 불상 앞에서 법장 조계총무원장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학 100주년 D-1000일' 행사를 불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사찰재산 정비등 교구활성화 추진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모연위 구성

조계종 직할교구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직할교구 사찰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 모연위원회도 구성된다.

조계종은 13일 오후 봉은사 문화센터에서 90여 직할교구 사찰주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제2차 교구 총회를 열고 직할교구 활성화 방안과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 모연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은 직할교구 활성화를 위해 △사찰 재산 정

비 △사찰 운영 안정화 △직할교구 소속감 증대 △주지 임명을 위한 현실적 평가 기준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국장급 13명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은 공식적인 호법국장에 각원스님(전 호법부 조사국장)을 전보 발령하는 등 국장급 인사를 13일 단행했다. 이와 함께 기획국장에 선임스님이, 감사국장에 태진스님이, 호법부 조사국장에는 세정스님이 각각 전보 발령을 받았다. 한명우 기자

정관 개정 못해

동국학원 일산불교병원

일산 불교병원 내 장례식장을 동국학원이 직영토록 하는 정관 개정인 통과가 무산됐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정대)은 13일 열린 제193회 재단이사회에서 전체 13명 중 8명이 참석, 정관 개정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 김철우 기자

고침 본지 434호 1면 '박사학위논문' 기사의 보각스님은 前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 교학실장으로, 10년 '다도삼매' 기사중 법연사는 법연사로 바로잡습니다.

'연대' 민평 심민섭

산사는 울창한 숲 속에 있건만...

불교계유치원 어린이포교

여기 연례쯤 울창한 숲이 될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동화사 사부대중에게 드리는 글

삼가 동화사 사부대중에게 고합니다.

민족의 영산 팔공산 동화사는 개산 1510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한국불교를 주도한 고승대덕을 수없이 배출한 대본산이다. 근세 한국불교의 종장이셨던 석우 대신사님은 정화이후 초대종정을 역임하시고 동화사에서 입적하셨다. 이에 선사의 유지를 계승한 석우문도는 불조의 혜명을 봉지함에 있어서 무아자비의 정신으로 민족과 지역불교를 주도해온 것이 사실이다.

동화사는 진계 법원 조실스님의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사부대중이 본분사인 수행에 전념하고 있으며, 현 주지 지성스님은 취임후 가람수호와 지역포교에 불철주야 노심초사 한 바 임기 1년이 지난 현재 종단 안팎으로부터 교구장으로서의 신망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동화사는 수행가풍은 물론 교구행정에 있어서 존보의 시비어지는非餘地가 없다. 그러나 현금現令에는 여법질서如法秩序에 반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연고로 동화사를 중심으로 한 사부대중이 혼란을 겪는 까닭에 석우문도는 심히 우려되는바 우리 문도는 교구의 질서를 어지럽힌 일부 도제의 행위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불제자의 대의에서 현주지를 중심으로 상호협조하고 상호존중하여 자비화합한다.

불기 2547년 7월 25일
문도 대중 일동

정정합니다.

지난 7월 30일자 현대불교에 게재된 [동화사 사부대중에게 드리는 글]내용에

1) [우리 문도는 교구의 질서를 어지럽힌 동화사 전주지로부터 비롯된 일련의 사태에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엄중경고 한다] 2)문도 대표 헌부, 문도 대중 일동.

상기의 내용은 원래의 내용과 상이함으로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1) [우리 문도는 교구의 질서를 어지럽힌 일부 도제의 행위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2) 문도 대중 일동.

※ 誤記로 인해 누를 끼친 부분에 관해서는 심심한 사과와 함께 불제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원각)